

2014 '이웃종교화합주간' 회향 평화로운 세상 선언 '다름도 아름답다'



불교와 원불교, 유교, 천도교, 가톨릭, 개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의 연합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가 지난 10월 16일과 17일 '다름도 아름답다'를 주제로 전국종교인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진행된 1부 소통의 장은 각 지역 KCRP들이 단합을 다지고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17일 부산 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부 화합의 장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합기원 퍼포먼스, 명랑운동경기 그리고 민속 대동제 등으로 진행되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7일 대회사를 통해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 몸과 몸을 부딪치며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같은 종교화합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등에서 이뤄지면 종교 갈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경진 행정부시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을 선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부산 종교인 대표들은 화합기원 퍼포먼스로 대회 주제인 '다름도 아름답다' 퍼즐의 마지막 글귀를 벽보에 붙이며 상생을 염원했다. 청중들은 7개 종단을 상징하는 7가지 색깔의 천으로 단심대 놀이를 하고 파도타기, 한마음 기차 릴레이 등의 명랑운동경기와 민속대동제를 진행했다.

특히 7대 종단을 대표하여 도선스님 등

은 공동으로 종교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인 평화 선언'을 선포했다. 평화선언은 △종교 세속화 및 종교 갈등 일으키는 자기 종교 중심 태도 반성 △진리에 대한 개방성 갖고 배타적 태도 버리며 민주주의 이념과 상식에 부합하는 종교의 길 추구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며 진리의 동반자임을 확신하고 사회적 공동선 실현하는 선한 벗 되기 △종교 활동의 근본 목적이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에 있음을 믿고 바른 실천을 통해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 △종교적 편향성 부추기는 모든 시도에 공동 대처할 것 등을 발원했다. 행사에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 700여 명의 이웃 종교인들이 동참했다.

'이웃종교화합주간'은 UN이 세계 종교평화를 위해 지정한 세계종교화합주간(World Interfaith Harmony Week)에 한국도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진행해왔다.

글_ 편집부

총무원장 자승스님, 라마 록상스님 맞아 환담 "인도의 불교성지 복원에 힘 보태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월 8일 인도 최대 불교단체인 아쇼카 미션의 회장이자 국제불교연맹(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IBC) 사무총장인 라마 록상스님을 맞아 인도의 불교성지 보존 사업, IBC 한국 지부 설립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마 록상 사무총장은 "IBC는 창립 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도 정부로부터 주요 불교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스리랑카에 지부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한국에도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방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마 록상스님은 인도 불교성지 보존 추진 사업에 한국불교계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마 록상스님은 이어 진제 종정예하께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에 초청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함께 예방한 키쇼투크라 IBC 상임이사는 "내년 IBC 총회에 조계종 대표단이 참석해 인도와 네팔 성지 개발과 후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하고 특급열차를 이용한 인도와 네팔 성지순례에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을 공식 초청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종단도 IBC의 활동



을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고 내년 10월 세계무차대회에 IBC를 공식 초청했다. 또 IBC 총회 참여와 성지순례 초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IBC는 2012년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통합적 참여, 불교수행 및 불교유적지의 복원과 유지, 다른 불교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폭력에 대한 반대 및 자비와 불교적 연기관의 증진, 정부 및 세계기구와의 접촉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달라이 라마, 틱낫한 등 전 세계적인 불교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도 진제 종정예하가 공동증명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인도 중앙정부 불교부 장관을 역임한 라마 록상스님은 당시 인도 아쇼카 미션 회장으로 IBC 창립을 주도했으며 현재 IBC 사무총장과 세계불교승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글_ 편집부

▶ 알립니다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가 2010년 3월 발간호를 시작으로 4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사정상 지면으로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5년부터는 인쇄를 지양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식지를 배달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나 웹북, 웹진,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국내·외 포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_ 전화 070-7769-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제6회 나란다 축제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모두 행복했던 대동 한마당

드넓은 동국대 광장이 오히려 좁게 느껴진 하루였다. 댄스대회, 교리경시대회, 범종을 울려라 등 6,000여 명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축제장을 가득 채우고 애드벌룬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참가자들이 무료 공양으로 맛본 고소한 자장면 내음도 공기 속에 섞였다. 젊음과 지혜, 흥겨움과 배움, 전통과 현대, 이 모든 것들이 불교의 이름으로 맛있게 버무려진 하루였다.

축제는 K-댄스 경연대회로 막이 올랐다. 중고생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현란한 춤솜씨로 동국대 체육관을 메운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이어 불교교리와 상식을 주제로 퀴즈를 낸 뒤 서바이벌 형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초등부 외국인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원어민교사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대1 결연을 맺어 문제를 푸는 외국인 부문 퀴즈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심어주었다. 외국인 부문 우승을 차지한 피롬 폭(20세, 부산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씨는 캄보디아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그는 "한국전통문화도 즐기고 불교 신자로서 관심도 있어 축제에 즐기러 왔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아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우승 상금 100만 원은 한국전통문화를 공부하기 위한 여행경비로 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미국인 엘리슨 마리 두

니언(20세, 연세대 국제경영 1학년)씨도 "문제는 어려웠지만, 조금이나마 불교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알게 돼 기쁘다."고 뿌듯해 했다.

행사 후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 봉사자들과 함께 자장면이 제공된 원흥관으로 향했다. 이날 3천 명에게 무료로 공양된 자장면은 '착한 짜장 스톱'으로 유명한 남원선원사 운천스님이 준비한 것이다. 스톱은 주로 교도소와 무료급식소, 복지관, 군부대, 학교와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단체들에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자장면 판매로 얻은 수익을 불우 이웃돕기에 전액 회사해왔다.

나란다축제의 모태가 된 교리경시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중고생들이 불교 교리와 역사문화, 수행 및 생활 등의 분야의 문제를 풀며 그간 갖고 묶은 불교 지식을 겨뤘다. 팔정도광장에서 '전통문화 체험마당'이 진행됐다. 율놀이, 투호, 비석치기, 협동 제기차기, 딱지치기, 고무신 던지기, 붓다 매듭 팔찌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스피드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축제를 정리하는 회향한마당은 댄스경연대회와 함께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춤과 노래로 한데 어울리는 모습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연상케 했고, 부문별 시상식과 축하공연,

▼ 외국인들이 퀴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대동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됐다.

21일에는 교리경시대회가 전국 35곳 군법당에서 일제히 시행되었고 24일에는 사관생도와 경찰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리경시대회가 열렸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도 축제

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은정불교문화재단과 포교원이 함께 힘을 모은 나란다 축제는 여러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연등회와 더불어 한국 불교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벌써 많은 불자들이 내년도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글 편집부

포교원, 간화선 수행의 국제화 위해 세계적 명상가 차드 멩 탄 초청 강연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엔지니어이며 저서 '네 안을 검색하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차드 멩 탄이 한국에 왔다. 해외 명상 트렌드를 이해하고 한국 선의 국제적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이 초청한 것이다.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명상 트렌드와 불교 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차드 멩 탄은 자신이 느낀 불교의 매력과 명상의 대중화 방안 등에 관해 얘기했다. 불교는 고통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개방적이고, 영적으로 심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 명상은 서구화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좀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듯, 명상도 마음을 위한 운동이란 관점에서 다가가고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상은 운동이고 훈련이므로 "단 1분 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게 명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수행법은 간단하다. "호흡에 집중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온 마음을 담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드 멩 탄은 싱가포르 출신이다. 명상에 기반을 둔 구글의 리더십 프로그램 '내면 검색 프로그램(Search Inside Yourself)'의 개발자로 세계각지를 돌며 불교수행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일지 물었다. 그는 21살 무렵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차드 멩 탄은 방한 기간 동안 양주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한국불교 문화와 명상전통을 체험하고 범어사를 방문해 수불스님과 불교 명상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글 편집부



(빈그릇 체험 이벤트로 발우공양 중이다.)

불교문화사업단, 2014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2014 이태리 세계슬로푸드대회 Salone del Gusto & Terra Madre>에 참가, 한국 대표 슬로푸드인 사찰음식의 건강한 맛을 세계인과 나눴다. 세계 160여 개국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세계 슬로푸드운동 국제협회(회장 카를로 페트리니)의 초청을 받아 참여한 것이다. 슬로푸드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사업단은 사찰음식 강연 및 시식회, 발우공양 체험, 레스토랑 운영, 공식 컨퍼런스 및 맛 워크숍 참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낯선 한국의 사찰음식의 맛과 무엇보다도 소박한 음식들에 담긴 소식(小食), 채식, 나눔과 배려의 정신에 매혹되었다.

연자잡곡밥, 삼색연근찜, 뿌리연잎찜 등 자연식재료를 활용한 슬로푸드를 판매, 수익금 일부는 아프리카의 식량 자급을 돕기 위한 아프리카 베택터블 가든 프

로젝트(Africa Vegetable Garden Project)에 기부했다. '빈그릇 체험 이벤트'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발우공양 체험은 스님이 발우공양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려주며 시범을 보여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의 특별한 강연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한몫했다. 선재스님이 '한국의 전통 장맛'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하는 한편, 대안스님은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을 진행하고, 우관스님은 오신채와 젓갈을 첨가하지 않은 색다른 사찰 김치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사찰 전통 공양간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전과 함께 사찰음식 사진전 및 홍보영상을 통해 사찰음식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세계무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찰음식 세계화'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www.kbuddhism.com



아름다운동행, 아이티 지진 참사 구조활동 결실 맺어

9월 24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의 지원으로 아이티에 건립된 헤르메 바야드(Heme Bayard) 고등학교 완공식이 진행됐다. 2010년에 일어난 지진 참사 이후 4년여에 걸친 복구 작업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0년 1월 12일 정오,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세계 최빈민국 중의 하나인 아이티를 덮쳤다. 대규모 지진 참사를 당한 아이티는 10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공공건물,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참사 직후 의료 봉사단을 파견하여 20여 일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재건 사업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40만 불(당시 환율 약 4억 8천만 원)을 지원,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학교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진 이후에 콜레라와 매년 반복되는 허리케인 피해, 불안정한 정세와 건축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재건복구 사업이 쉽지 않았다. 마침내 4년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도시 자크멜(Jacmel)시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가 완공됐다. 학교는 3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8동, 남녀 화장실 각각 1동과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우물 시설, 그리고 넓은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



아이티 교육위원회 대표는 “교육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마련돼서 정말 기쁘다. 한국과 대한불교조계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육 공간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역량 강화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반목보다는 화해, 미움보다는 사랑, 독점보다는 나눔, 대립보다는 공존을 우선시하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이티 정부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학교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통해 아이티가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글 아름다운동행

- ①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완공식에 참석한 내빈들
- ② 완공된 학교의 사진 / 9월 24일 진행된 완공식은 지역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 ③ 완공식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자리해 축하했다.

더프라미스·로터스월드, 시민사회 활동가 워크숍 개최

국제개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범등스님)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는 태국 SEM(Spirit in Education Movement)의 훈련가를 초청하여 지난 10월 3일부터 3일간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태국SEM과 함께하는 시민사회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SEM은 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로 올해 8월 방한하여 시민사회활동가들을 위해 강연한 바 있는 술락 시바라사 박사가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이다. SEM은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의 원리에 기반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지역개발과 시민사회조직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일상생활과 단체활동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조직생활과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워크숍에서 교육 훈련가들은 참가자들에게 지식이나 기법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했다. 쟁점이 될 만한 어떤 이슈에서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참가자 스스로 느끼고 그 느낌을 공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 훈련가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후, 명상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했고, 경청(Deep Listening), 심층 민주주의(Deep Democracy), 톨 플레이, 대화와 코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가자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SEM 교육훈련가들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감정의 자각과 공유만으로도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 SEM 교육 훈련가들은 이러한 자각과 공감이 역량 강화(empowerment)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활동가는 워크숍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동안 업무 과다로 힘들었다. 스스로 조직의 부품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치유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모든 참가자 또한 워크숍의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SEM 교육과정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는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사회활동가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SEM과 공동으로 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글 더프라미스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초등학교 준공식 가져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증축하고 라오스에 새로 초등학교를 완공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10월 27일 캄보디아 따깨오주 바티군에 위치한 프라빠양프라우 금산사초등학교에서 증축 준공식을 했다. 준공식에는 이사장 월주스님 등 공생회 대표단을 비롯해 현지 주 정부 관계자와 학생, 마을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라빠양프라우 금산사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1월 제17교구 본·말사와 월주스님 문도회의 후원으로 문을 열었다. 인근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었던 당시 학교가 건립되자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교 당시 385명에 달하던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467명의 아이가 교육받고 있는데 학생의 증가와 함께 교실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증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되어 6개월 만에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었다. 마을 주민들도 부지를 고르게 하는 작업과 울타리, 배수로, 담장 공사 등에 직접 참여해 학교 증축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증축과

더불어 복도와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수리도 진행되었다. 교실 신축을 계기로 금산사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새로 지은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이어 29일에는 라오스 싸이타니구 켕카이 마을에서 켕카이 금화초등학교 준공식을 가졌다. 기존 켕카이 초등학교는 지역 사찰 내에 학교가 있어 수업 환경이 열악했다. 이런 사정을 접한 금화사 주지 일초스님이 학교 건립 비용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130여 평 규모의 학교는 교실 7칸(유치부, 초교 5개 학년, 교무실), 화장실 4칸을 갖추고 1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금화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복과 교과서, 가방, 교사 유니폼, 사무용품 및 상비약 등 50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다. 학교 건립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물품을 준비한 금화사 신도들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였다.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동도서관 사업과 연계해 켕카이 금화초등학교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 지구촌공생회



제10회 세계일화 대회, 세계와 한국불교를 잇다

“세계는 한 송이 꽃”임을 표방하는 세계 일화 대회가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이틀간의 본 대회를 비롯하여 사찰 순례, 사진전시회와 참선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찾아온 약 200여 명의 고(故) 송산 행원 큰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불교문화는 물론 가을이 무르익은 한국의 대자연에 흠뻑 젖어든 법(法)의 대향연을 펼쳤다.

2,600여 년 전 인도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으로써 우주의 실상을 설교하셨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만공 대선사께서는 무궁화 꽃잎을 먹에 갈아 붓으로 “세계일화(世界一花,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를 쓰셨다.

▼ 수덕사에서 입재식 후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 회향식 전 각국 제마스터 대표를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이는 모두 평등, 조화 그리고 평화에 대한 표현이었다. 나와 너, 하늘과 땅, 동과 서, 모든 국가와 종교와 인종이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그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송산 행원 큰스님께서는 불교와 선(禪) 수행을 통하여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전통의 사람들을 화합과 조화의 정신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장(場)의 일환으로 약 30여 년 전에 세계일화 대회를 창설하셨다. 이후 매 3년마다 홍콩, 중국, 미국, 싱가포르, 바르샤바, 인도, 네덜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0회 세계일화 대회는 공교롭게



도 송산 행원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0년째 되는 해와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송산스님께서 약 40년에 걸쳐 전 세계 곳곳에 창건하신 국제관음승가의 수행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았다.

일정은 화계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박 4일 동안 머무르며 본 대회를 치렀으며, 이후 계룡산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송산스님 10주기 추모재를 갖고 외국인 스님들이 수행한 범어사, 운문사, 석남사, 그리고 대자연과 어우러진 유서 깊은 낙산사를 순례했다. 해외에서 참가한 외국인 수행자들은 송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한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각 사찰의 따뜻한 환대, 무르익은 가을 풍경을 자랑하는 설악산 등의 자연에 흠뻑 취해 여정 내내 감탄을 연발했다.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께서 따뜻한 격려사를 선사하여, 한국의 불교와 정에 흠뻑 젖어, 마지막 일정을 아쉬워하는 해외 참가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위로해 주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세계일화 대회 워크숍



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한국불교에 뿌리를 둔 국제관음승가는 현재 전 세계 약 30개국에 약 100여 개의 선원과 소속단체를 두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송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한 한국 선불교를 일상 생활에 접목하여 수행하며 포교하고 있다.

글_ 화계사 / 사진제공_ 애니타임투어

미국 애틀랜타에 붓다나라템플 개원

붓다나라템플(주지 선각스님)은 지난 10월 11일 부처님 점안식에 이어 12일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 뷰포드시 그래버 스프링스 로드 에 위치한 붓다나라템플은 10에이커가 넘는 넓은 부지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요사채, 지대방, 호수, 숲길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절이다.

법회는 LA에서 오신 현일 큰스님을 모시고, 용인 화운사 선일 주지스님, 국제불교학교 스님들, 국제포교사 스님들, 뉴욕 관음사, 애틀랜타 전등사 등지에서 오신 스님들과 불자들, 한국에서 온 17명의 붓다나라 후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부처님 점안식, 육법공양, 음성공양 등의 의식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지현스님(뉴욕관음사 주지)의 법고와 바라춤, 미국 전등사 청소년회사물놀이, 한국붓다나라 후원회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로 현지 교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백승화 신도회장은 “애틀랜타 붓다나라 템플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신도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애틀랜타 불자들이 뜻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선각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봤다. 약 10여 년에 걸쳐 불사기금을 모

▼ 한국붓다나라후원회와 함께한 주지 선각스님



아오다 2012년 애틀랜타 땅을 매입하고, 2013년 12월 31일 설계 허가 승인, 2014년 3월 공사 시작, 10월 10일 준공 승인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붓다나라를 창건하게 됐다. 오래된 꿈을 이루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 선각스님은 “10여 년 넘게 변함없이 무한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해 준 여러 불자님께 감사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미국지역 포교뿐 아니라 한국과 연계하여 템플스테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인 교민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붓다나라가 될 것이다.”며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오늘도 세계일화를 그리며, 쉬 없이 수행 정진 중이다. 글_ 국제포교사 문명하

남가주 타라 결성, 첫 파티 준비 모임 가져

지난 8월 31일 태고사(8400 Juniper way Tehachapi CA 93561)에서 있었던 청년부 템플스테이 인연으로 만난 남가주 젊은 불자들은 주지 형전스님의 권유로 북가주에 이어 남가주 타라(TARA)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LA 시내 K타운에 있는 달마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연말에 있을 첫 와인 파티 모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시: 12월 6일 오후 4시 ▲장소: 7544 Muller St Downey CA 90241 ▲참가비: \$25 ▲반 정장Semi-formal로 꽃단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오기 ▲담당: 와인과 장식- 동우와 혜진 법우, 파티의 계획과 진행- 원일 법우, 전체적인 음식관리- 중원 법우.

그리고 10월 25일에 다시 모여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각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가며 조율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달마사에 모인 우리 남가주 불자들은 먼저 법당에서 간단히 법회를 보고 한 달간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사는 원일 법우는 기나긴 여정의 여행 이야기, 혜진 법우는 일하는 병원을 옮기면서 힘들었던

일, 중원 법우는 비행기를 만들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힘든 점, 동우는 즐겁게 친구들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법우의 삶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남가주 타라의 힐링 법회입니다. 타라 법사 소임을 맡은 형전스님께서 법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축원의 말씀과 함께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이라하며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사 1주일 전인 11월 29일에 다시 법회를 갖고 행사 준비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 사항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1553861138167192/> 으로 만나고, 카톡방을 통해 행사를 위한 질문과 답을 항상 주고받도록 하셨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 법을 함께 하는 법우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고사는 가족이 없거나 한국이 그리운 분들을 위한 팅스기빙(Thanksgiving) 템플스테이를 할 계획입니다. 회비는 없고 한 가지씩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이나 재료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편안하게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새벽 예불하면서 별 보고 달 보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간은 11월 26-27일 이틀간입니다.

타라 문의 734-239-4037 / 661-822-7776
e-mail_ tarasocal@gmail.com



시카고 불타사, 열정과 가족사랑이 가득했던 불타가요제

시카고 불타사(주지 성향스님)는 미국 불포대보살 점안 제3주년 기념 불타 가요제를 10월 25일 보원관음전에서 개최했다. 좀 더 살기 좋은 사회와 포대보살처럼 위대한 스님이 많이 출현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한인 가족들이 함께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가요제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가족단위 12개의 팀이 참가해 가족의 색깔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불타예수단의 북춤, 주지스님의 종송과 16명으로 구성된 불타사 합창단, 박정암·박대각성, 신해명 불자의 축하공연 등과 함께 모든 참가자가 함께 '달이 뜬다'를 합창하고 라인댄스를 추며 흥을 돋웠다.

주지스님은 "평소 가족들은 너무 바빠서 무엇을 함께할 시간이 없다. 이번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깃든 행사이다. 작년까지는 개인으로 나오는 팀이 많았다고 들었다. 올해는 효의 뜻을 되살리고 소

중한 가족애와 화목, 평화로운 삶을 유도하고 싶어 가족을 주제로 개최했다. 어린이 가족은 물론 젊은 불자, 신도들의 화합 등 세대 간 가족애를 느끼고 가족의 화목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진심 준비위원장은 "가족끼리 함께 가요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다. 가정의 화목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준비하면서 한국문화를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개구장이 스님' 노래와 함께 율동을 준비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던 김나린, 김태연 남매는 "한국말로 노래를 연습하는 게 힘이 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2등을 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상은 '봄이 가득해'를 부른 박세린·이세음·이서이 팀에게 돌아갔다. 타국에서의 바쁜 삶 속에서 함께할 사찰과 스님과 도반이 있다면 불국토의 세상이라.

시카고불타사 www.bultasa.org



▼ 포대보살 점안 제3주년 기념 불타가요제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뉴욕 원각사, 대가람 꿈을 안고 힘차게 도약한다



미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원각사(주지 지광스님)가 새롭게 웅비하고 있다. 전통 한국식 대웅전을 비롯한 무량수전, 요사채, 일주문, 천왕문 등 대가람을 조성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1천만 달러 대작 불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1974년 송산스님이 뉴욕에 창건한 원각사는 1987년 법안스님에 의해 뉴욕주 쉐리 스페리밀스의 230에이커(약 30만 평) 부지로 이전,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중창 불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스님의 병환으로 사찰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스님은 입적하셨다. 이후 원각사는 정우스님(원각사 회주, 조계종 군종교구장)과 인연을 맺고 지광스님이 소임을 보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원각사에 한국전통 법당을 지으려는 대작불사는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수십 건에 달하는 공사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끝없는 인내의 연속이었다. 서류심사와 실사작업, 주민공청회가 거듭되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높이 8m의 청동석가여래좌상은 2010년에 건립되었으나 대웅전은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미뤄졌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끼어 맞추는 한국 전통식 공법을 정부 관계자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끈질긴 설득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대웅전을 지을 목재들은 세계 수준의 최고급 나무들이다. 나이에 지름이 1m가 넘

는 최소 수령 500년 이상 된 나무로 정우스님과 지광스님, 정화섭 씨 등 많은 불사 추진 위원들이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나무를 고르고, 사서 제재하여 가져온 수고의 결과이다. 특히 한국 최고의 사찰 목조건축 전문가인 현고스님(광주 원각사 회주)이 동참함으로써 대웅전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15년 11월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작불사를 가능케 한 것은 많은 불자의 정성이다. 특히 2011년엔 미국인 사업가 해리 두리틀 씨가 110만 달러의 불사금을 보시하기도 했다. 최고의 목재에 최고의 전문가들, 미국과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합친 대작불사가 마무리되면 원각사는 명실공히 미주불교계 최고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원각사는 11월2일 창건 40주년 기념 법회 및 문화대잔치를 봉행한다. 정우스님이 특별 법문을 하며 '깃타르타의 깨달음(음악 감독 이진구)이 공연된다.

지난 9월21일에는 삼사순례를 다녀왔다. 윤달에 세 곳의 사찰을 순례하며 복을 비는 전통에 따라 주지 지광스님과 상인스님 등 신도 70여 명은 원각사를 출발해 뉴욕주 카펠의 중국사찰 장엄사와 우드스탁의 티베트사찰 카르마 트리야나를 참배했다. 원각사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불교문화의 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_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

세계적 불교박람회 참가, 불교예술 위상 높여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廈門市)에 위치한 하문국제회전전시관에서 열린 중국 최대, 세계 최대 규모의 샤먼 불사용품전람회에 작은 이번이 생겼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전람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한국관에 인파가 몰린 것이다. 총 5만 명, 즉, 하루 1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한국관을 찾았고, 뜨거운 호응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첫 참여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이었음에도 이렇듯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엄선된 작품들의 높은 수준 덕분이었다. 하문박람회 참여 희망업체 선발 시 예상보다 많은 참가 신청이 쇄도했고, 그중에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가장 우수한 6개 업체를 선발했다. 말 그대로 한국불교 예술과 산업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었다. 불모(佛母) 서칠교 불상조각가는 뒷모습도 아름다운 33관을 조각상을 출품했다. 지난 2008년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재운 불상조각가는 불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2014 불교박람회 '부디즘 어워즈 우수업체상'에 빛나는 갤러리 나무는 불교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2010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금풍공예', 유리공예업체인 '마가글라스', 천연염색 옷을 제작하는 '이미에 갈웃' 등도 대표작을 선보였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작품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품격 소품까지 다양한 불교용품이 선보되었다.

이렇듯 뛰어난 작품을 선보인 한국관은 첫날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람객들은 한국불교용품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면서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 중국 불상조각가는 "한국불교 작품은 처음 접해보는데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며 "한국적인 품격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열띤 호응은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서칠교 불교조각가는 관음



보살상 작품 2점을 현장 판매했고, 이재운 조각가는 사찰과 개인, 업체 등 다양한 경로에서 작품 구매 및 주문 제작 의뢰를 받았다. 천연염색옷도 큰 인기를 끌었다. 대만 등 타 지역 박람회 주최 측이 방문해 적극적으로 교류 제의를 하였으며, 내년 2015 한국박람회 참가문의가 이어졌다.

채석봉 불교박람회 국제팀 팀장은 "무엇보다 국제불교 시장에서도 한국불교 문화상품들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한 것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의 우수한 콘텐츠와 다양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한국불교문화상품으로 진출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첫 참여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취향을 살피는 현지화 전략이 부족했다. 한 예로 부처님 상호가 중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구매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불상이나 보살상이 가진 예술성이나 제작 수준은 훌륭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친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공간이 협소해 각 업체들이 각자의 특색을 충분히 발휘해 진열할 수 없었고 바이어들에게 차분히 작품을 설명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던 점도 아쉽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이재운 불상조각가는 "중국 불교미술의 경향과 기법 등을 살펴보고 한국불교미술의 세계 진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의 참여가 앞으로 한국불교문화 및 관련 산업이 중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사진제공_ 불교박람회 채석봉 팀장

오리건에 새로운 담마학교 개원



유진, 오리건(미국) - 비영리학교가 이 지역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다. 사라하 어린이학교(Saraha Children's School)는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교육을 결합한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명상뿐 아니라 티베트 교육을 통해 자비, 지혜, 평화

등을 전파한다. 사라하 님마 불교연구소에 의해 6개월 전에 설립된 사라하 어린이학교의 목표는 "어린이들이 나이에 맞게 지혜를 갖추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 어린이들이 세계의 교양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특

히 동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적이고 평화로우며 긍정적인 영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교는 사라하 님마 불교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한다. 주중에는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하는데 7,000평방피트의 시설과 2.5에이커에 상당하는 녹지대 등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우리는 모든 종교를 존경하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의 명절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라하학교의 교육시스템은 불교와 통합되어 있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와 염불, 명상, 티베트어 교실 등 45-60분의 불교 관련 수업으로 하루 일정이 시작되고 그 후 산수, 과학, 사회과목 등

일반 학과가 이어진다. 하루 수업을 마칠 때도 역시 모두 함께 모여 20분 동안 기도 공양을 한다. 사라하학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전한 균형 감각을 갖게 되며 불교를 이해하고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학교의 장기적인 교육목표는 학업이나 교육 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건강하고, 지적이며, 교양있는 또한, 평화롭고 현명하며 자비심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표정이 학교의 미래이다.
Naushin Ahmed,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0. 9]

쓰레기 처리장이 불교연구소로 탈바꿈

울런공, 호주 - 울런공의 난 티엔 사원이 불교의 가르침만큼이나 영적인 건물을 갖춘 불교연구소를 개원했다.

불광산사의 국제불교연합에 의해 설립된 난 티엔 연구소 건물의 미학적 특징은



환경과의 밀접한 연계, 사색적인 공간 창출, 불교적 이상 구현이다. 설계의 중심 소재는 불교의 대표적 상징인 연꽃으로, 설계자인 우즈 바고트는 "진흙에서 피어나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표현했다. 이곳의 유래를 알면 이는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인데 건물이 들어선 곳은 원래 난 티엔 사원과 인접한 쓰레기처리장이었던 곳으로 지역 의회로부터 단돈 1호주달러로 사들인 곳이다.

쓰레기처리장에 건물을 세우는 데는 4년간의 설계와 건설작업, 그리고 토양 복원 작업등이 요구되었다. 건물은 연구소 외에도 미술 갤러리, 도서관, 그리고 카페 및 학습시설들이 갖추어진 공동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광산사의 인간 중심 사상과 부합되기 위해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구조를 피하고 극단적 사고와 물질주의를 배제한 중립적 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Angela Fedele, www.sourceable.net [2014. 10. 7]

수식관 명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려요

마하라쉬트라, 인도 - 마하라쉬트라주(州) 정부는 2,500만 명의 초중고생들을 위한 수식관(數息觀, 숨을 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여 그 결과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다.

수식관은 콧구멍 입구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호흡이 어떻게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의식이 증대되고 다양한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주 정부 교육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시작단계에서 70분간의 수식관을 훈련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아침 수업 시작 전과 오후 하교 전 각각 10분의 수식관이 허락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



사 및 학교 종사자들도 포함되는데 이미 10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자신감 고양, 높은 생산성,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 대해 자비와 기쁨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교 친구, 선생님, 그리고 부모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그 결과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청소년 비행에 빠질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BD Dipananda,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0. 6]

방생이 오히려 물고기를 죽인다

하이난, 중국 - 방생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공양물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이곳 하이난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방생은 갇혀 있는 동물들을 다시 자연에 풀어주고 복을 받으려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중국 불자들은 거북이를 풀어주면 장생할 수 있고 물고기를 풀어주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종교 선한 일이 그러하듯 불법적인 동물사육이 성행하는 이 곳에서는 방생도 불자들의 호주머니 속 동전까지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비뚤어진 벤처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교를 주제로 한 난산 문화관광지구에서 이뤄지는 방생에서 물고기나 거북이는 한화 6,800원에서부터 35만 원까지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가장 비싼 것은 바다거북이로 거의 900만 원까지 값이 올라간다. 물고기 구입에 천만 원 넘게 쓰는 사람도 있다. 방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허가 받은 양식장에서 거북이를 구입하고 방생 후 다시 잡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상해의 인터넷 신문 페이퍼Paper에 의하면 지역



의 어부들은 방생된 바다거북이들을 다시 잡아 팔아 돈을 번다고 시인했다.

작년에 송지양 지역의 인공호수인 시징호에 수많은 물고기가 죽은 채 떠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해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의 물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훗날 이 재난이 방생으로 인한 물고기들의 폐죽음이었음이 밝혀졌다.

작년 12월에는 사람들이 800마리의 잉어를 풀어주었는데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모두 어획되는 일이 일어나 방생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www.shanghaiist.com [2014. 10. 8]

인도 9개 종단 지도자들 개혁 방안 논의

뉴델리, 인도 - 달라이라마, 오기엔 트린레이 도르제(17대 갈왕 까르마파)를 비롯한 인도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9월 20일과 21일 뉴델리에 모여 증가하는 사회적, 종교적 현안들에 대한 대처를 논의했다.

달라이라마가 주재한 이 회의에 참석한 힌두교, 이슬람교, 시킴교, 기독교, 불교, 자이나교, 유대교, 바하이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대표들은 여성의 권리 확대, 환경 의식, 빈부의 차이, 인성교육, 종교로 인한 범죄, 현대에 맞는 종교 전통 및 의례의 재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달라이라마도 원탁 테이블을 돌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토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했다. 달라이라마는 성적 평등은 종교 개혁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영적 수행은 현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는 변합니다.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셨지만 동시에 비구와 비구니가 동석하게 될 때 비구니는 비구 뒤에 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계를 받은 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간의 모임은 '2014 델리 선언'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다. 이 선언문은 논의된 주제들을 실현하는데 각 종교들이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실현 방법들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결의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Naushin Ahmed,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0. 3]

진언(만트라)이 벼의 수확을 높인다 - 식물은 유정일까 무정일까

음악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분위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식물에도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 생각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福建省, 복건성)의 리양산 주민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벼에 불교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수확량이 15%나 증가했던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6.7 헥타르의 논에 설치된 연꽃 모양의 스피커를 통해 진언과 부드러운 선율의 염불을 들려준 결과 낱알의 크기가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벼를 굶아 먹는 해충들도 이 논들에서는 음악을 즐기지만 할뿐 음악이 없는 다른 논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음악이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농업학교의 연구자들은 진언과 같은 특별한 음파는 공명을 일으켜 식물 잎의 숨구멍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음악만이 이런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음악은 성장을 돕지만 반면에 록 음악은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역의 한 농업 관리자는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영국의 저명한 정원사인 크리스 비어드쇼는 작년, 온실 4개에 심은 식물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된 실험을 한 결과 다른 유형의 음악들은 식물 성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블랙 사바스의 요란한 소음과 같은 음악을 들은 식물은 키는 가장 작았지



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가장 좋았다. 고전음악을 들은 식물은 음악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란 식물보다 키는 다소 작았으나 더 많은 꽃을 피웠고 병충해도 더 적었다.

F.T. 트래버스 박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을 읽어주면 그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생리능력이 초월명상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같은 구절인데도 현대 언어로 읽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식물들은 뇌나 신경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도에 발간된 책 '식물들의 비밀스러운 생활(The Secret Life of Plants)'은 심장박동 기록기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식물들이 유정(sentient), 즉 지각력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불교 종파에서 식물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유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젠 선사에 의하면 “풀, 나무, 땅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중생(sentient being)이다. 중생이기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9. 26]

식사도 수행으로

캔사스 시티, 캔사스주(미국) - 캔사스 시티에 있는 사찰 불교센터의 책임자인 재닛 니마 테일러에게 식사시간은 명상을 위한 시간이다. 그녀는 음식을 식탁으로 가져가기까지의 모든 과정 동안 마음 챙김에 집중한다.

이 명상의 시작은 식재료들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 즉 한 통의 양배추를 예로 들면 씨 뿌리기, 햇빛, 비, 농부의 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 동안 들어가는 모든 노력과 존재들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계속된다.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기쁘고 더러운 그릇을 씻는 일도 기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자신 안의 깨어있는 생명을 느낄 때 온 세계가 함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음식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당근을 먹을 때 오직 당근에만 집중하면 당근의 모든 맛이 풍부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도 수행은 한 잔의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강력한 수행이며 음식에 관련된 의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음식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 요소들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다. 굳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깨부술 필요가 없다. 단지 현재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라. 삶은 원래 즐거운 것이다.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 속에 가득한 기쁨을 놓치지 말라.

Mary G. Pepitone, Kansas City Star [2014. 9. 8]

만화영화 캐릭터 도라에몽 사찰로 출격!

방콕, 태국 -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태국사찰을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파란 로봇 고양이라니? 맞다! 바로 그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은 분명 전통적인 불교 예술 소재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찰에 만화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사찰 벽화에 이 로봇 고양이가 그려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을 때 왓 삼파 시우 사찰은 처음 화가들에게 작품을 부탁할 때 불교적 도덕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뭐든 원하는 대로 그려도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라에몽도 업보를



겪는 것을 그림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다. CNTV에 따르면 주지스님은 벽화에 도라에몽이 그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왔거든요.”

주지 러트짓사찰 스님도 어렸을 때 도라에몽 팬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가 말한 것처럼, 일부러 찾지 않는 한 그 캐릭터는 언뜻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경내에 들어서면 사정은 다르다. 도라에몽 동상들이 버티고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어린이들이 도라에몽을 보러 절에 옵니다.” 화가는 말한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보러 오는 거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 선한 감정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앵그리버드까지 자리를 차지한 걸 보면 왓 삼파 시우 사찰은 확실히 현대의 대중문화에 개방적인 듯 보인다.

Brian Ashcraft, www.kotaku.com

[2014.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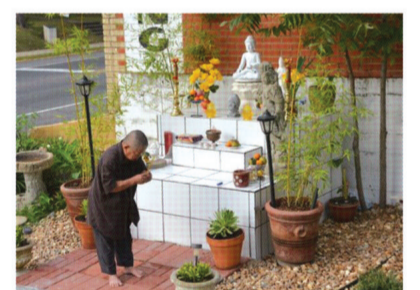
기적의 부처상에 참배하는 마을주민들

파인빌, 루이지애나(미국) - 자기 집의 앞마당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이 세상에 평화와 이해,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 큰 손해는 아닐 것이다.

몇 년 전 새로 이사 온 에디 라쉬니는 정원에 부처상을 놓았다. 그는 본인 스스로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항상 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매혹되었고 그 가르침이 현재 자신의 인격 형성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런데 라쉬니 마당의 자그마한 부처상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풍 레(70)와 그의 아내였다. 베트남에서 미국에 온 지 7년이 된 이 노부부가 하루에 두 번씩 찾아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던 부처상이 법당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빌리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2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의 아내와 가족, 친구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부처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이곳에서 기도했고 그 후 빌리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이를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바이러스의 흔적은 아무 데도 없었다.

빌리의 회복에 감사하기 위해 지역의



불교인들이 현재 모습의 법당을 꾸미기 시작했다.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던 부처상은 이제 아시아에서 수입한 타일도 자기로 장식된 불단에 안치되었고 다른 불상들도 함께 놓여졌다. 주위에는 화분들로 장식되었다. 이제 1주일에 30~40명이 이 법당을 찾아와 기도한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오죠.”

이 법당 덕분에 베이톤 루지에도 법당이 생겼다. 라쉬니는 이는 단지 불교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안마당 일부가 법당으로 되어버려 재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큰 영예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다른 문화와의 유일한 접촉입니다.”

라쉬니의 표정은 확신에 차있다.

Melinda Martinez, The Town Talk

[2014. 10. 17]

제11회 2014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함께해요, 우리는 하나! (Join us, we are the one!)

10월 19일(일) 감동과 화합의 축제 「제11회 2014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가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최하고 경북이주노동자지원단체협의회(꿈을이루는사람들 구미마하이주민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에서 주관한 '함께해요, 우리는 하나!' 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는 한국노래경연대회, 아시아 전통문화공연, 아시아 전통의상 및 전통음식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했다.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최종원 구미시 부시장과 심학봉 국회의원 등 지역의 기관 단체장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고, 외국인 근로자 10개국 대표들이 글로벌 희망선언식 '희망을 말하라'를 낭독하며 한국생활에서의 실천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스리랑카, 태국, 몽골의 전통춤 공연과 야단법석 운동회,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노래자랑대회를 하며 신나는 어울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축하공연으로는 방송&밸리댄스와 마임 퍼포먼스, 비보이공연, 트로트와 민요공연이 관객의 흥을 돋우었고, 20여 개의 체험 부스에는 아시아 전통음식, 의상체험, 민속



▼ (좌)10개국 대표들의 글로벌 희망선언식 (우)야단법석 운동회

놀이체험, 도자기 공예 체험과 티셔츠 페인팅체험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 체류지원상담, 통장개설, 안전보건캠페인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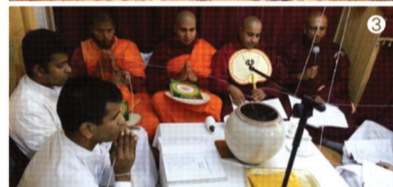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고국을 떠나 한국의 경제발전엔 큰 힘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단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인과 함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근로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민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사진으로 본 남방불교의 가사공양 법회

우기 안거가 끝나고 난 후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가 남방불교의 여러 나라 법당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① 10월 26일 파주 시민회관 태국
- ② 10월 19일 평택 스리랑카
- ③ 10월 26일 스리랑카 양주 마하보디사
- ④ 10월 26일 산본 캄보디아



제4회 오산시 다문화 한마음축제

경기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병희)는 지난 19일 오후 시청광장에서 '제4회 오산시 다문화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행복한 이주민센터,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오산이주노동자센터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광양옥오산시장과 시의원 등 내빈과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다문화 한마음축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운영과 전시, 공연, 경연 등이 펼쳐졌다.

다양한 부채 만들기 체험과 국가별 전시를 비롯해 한국을 비롯한 일본·베트남·몽골 등 국가별 교복을 전시하고 체험해보는 행사는 세계 각국의 학교문화에 대한 공감감을 통해 문화의 동등성과 다양성을 인식

하는 자리가 됐다.

국가별 부스에서는 각국의 음식·놀이·의상·음악 등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먹거리 행사 부스로 운영된 세계 면 요리 부스에서는 한국의 소면을 주제로 각 나라의 레시피로 준비한 면 요리를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의 인기를 얻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적·법률·건강·취업 상담 부스도 운영됐으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거북이 달리기와 노래자랑 등 함께 참여하는 경연을 통해 참가자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한편,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정착 및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청소년이 간다! 지구촌 평화기행 2014/15 : 네팔



나라스레~~~
네팔에서 만나쇼!!!

Global Peace Journey
to Nepal 2014/15












- 공동주관: 젊은 부처들 한국 YBA,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일시: 2014년 12월29일 ~ 2015년 1월5일 (7박8일+전후 각1일)
 - 장소: 네팔 중부 랄리트푸르, 중부 신두팔족 무대
 - 인원: 평화와 국제연대에 관심 있는 한국 중고등학생 20명
 - 참가비: 185만 원 (항공권 금액에 따라 5만원 범위 내 변동)
 - 모집기간: 11월 15일까지 이메일 접수 (ybakorea@ybakorea.org)
 - 문의: YBA 사무국 02) 6414-1034
- ☞ 응모요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ybakorea.org 참조